

##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목양산업(2)

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목양지도를 그려보면 영어권, 동부 아프리카어권 및 흑인들의 거주지로 구분이 된다. 이 나라의 공용어가 영어를 위시한 11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나, 실질적인 용어는 영어가 중심이 되어 있어 초등학교 1-2학년까지는 제 고장의 언어로 교육을 받지만, 3학년부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어 있다.

사용되는 언어권에 따라 영어권과 아프리카어권이 모두 메리노 양 사육의 중심이 되어 있다.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구 5,119만 명(2012년)중 약 3천2백여 만 명의 인구가 양모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데, 이 목양산업이 외화벌이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,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톤(maton, 식용 양고기)의 70 % 이상이 양모를 생산하기 위한 양으로부터 나온다. 비가 적은 이러한 카루(karoo)<sup>1)</sup>지역의 광대한 목장에는 얼마 되지 않는 양밖에는 사육할 수가 없다.

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양모 깎이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시행된다. 즉 양모의 길이가 75~100 mm가 되면 채모한다. 2011년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총 양모 생산량은 46,100톤인데, 그 중 70 %인 32,200여 톤이 메리노 양모였고, 나머지가 기타 양종의 양모였다. 이 기타 양모 중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산인 카라쿨(karakul)<sup>2)</sup> 양모가 포함된다.

메리노 양모 등 고품질의 양모생산지는 포트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~500 km의 대 카루 지방을 포함하는 케이프주다. 호주나 뉴질랜드의 채모 방식은 주로 전동 털깎이 기구를 사용하지만, 이 나라에서는 인건비 관계로 아직도 50 % 정도가 수작업에 의한 가위로

---

1) 카루 지역 : 남아프리카 케이프주(Cape state)의 고도 1,500 m 이상 되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대한 건조지역

2) 카라쿨 : 미지종 양의 일종으로 Astrakhan이란 모피를 생산하는 양. 카라쿨이란 Kara Kul 즉 Black Lake란 이름에서 연유됨.

양모를 깎아내고 있다.

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양모 클래스링(classing)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양모는 메리노, 크로스브레드, 코오스 화이트(coarse white)와 코스 컬러드(coloured) 및 카라쿨의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는 클래스링(classing)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데, 그 배경은 값싼 흑인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수작업에 의한 클래스링이 세계 제일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.

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양모는 모두 케이프타운, 포트엘리자베스, 이스트 런던 및 더반의 항구를 통하여 선적되는데, 그 중에서도 포트엘리자베스에서의 출하가 가장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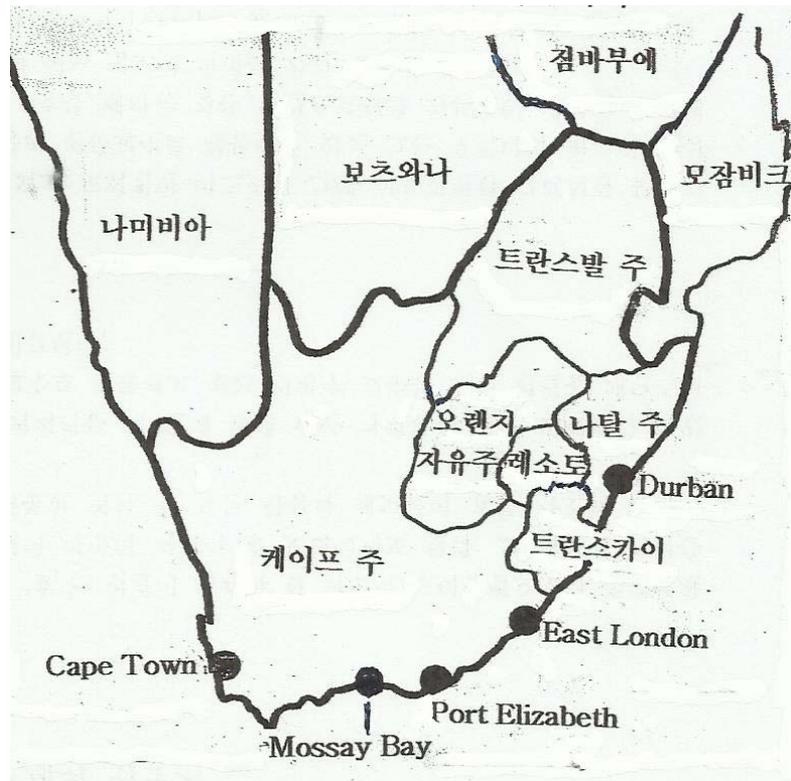
남아프리카공화국의 메리노 양모는 예전부터 21~22  $\mu\text{m}$  중심의 가느다란 것과 촉감이 부드러운 양모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, 근래에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다소 굵어지는 경향이 있으며, 이미 세번수 양모(fine wool) 시장으로서의 명성은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.

그러나 그 부드러움과 양모 톱(wool top)의 수율이 좋다는 특징은 아직도 남아 있다. 또한 최근에는 양모가격이 떨어져 고기용 메리노 종 및 건조지대에 잘 견디는 고기용 양종의 개발에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, 점차 새로운 타입의 양종이 고정되고,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. 원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후관계상 영국종의 양 사육이 적당하지 않아 양고기의 수요량을 토착 양으로 채워왔던 사정도 있어 새로운 타입의 고기와 양모 겸용의 양종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된다.

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토착양인 Black-head Persian Africander 양도 사육되고 있으며, 카라쿨(karakul)도 새끼의 모피(아스트라칸, astrakhan)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많이 사육되고 있다.

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카라쿨 사육은 카라쿨종이 미지종이란 이점을 살려 메리노 양 등 다른 양종을 사육할 수 없는 거친 황무지에서의 번식에 성공하여 이 나라의 아스트라칸이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.

또한 양고라 산양은 1836년 터키에서 수입해온 이래 전국 각지에서 사육하여 왔으나, 현재는 포트엘리자베스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대량으로 사육되고 있으며, 4~5월과 9~10월에 2회 전모한다. 미국, 터키와 함께 세계 3대 모헤어 공급기지가 되어 있다. ♣ (공석봉)



<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목양지역>